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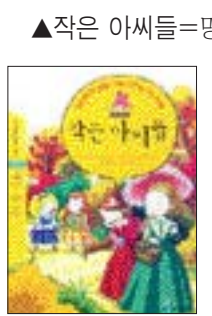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마주보는 세계사 교실(2권·비단길이 번영을 이끈다)=학교와 선생님이 세계사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역사사리, 서로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배우는 열린 마음과 공존의 지혜를 보여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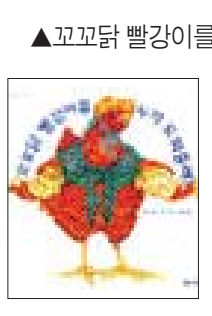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35년의 삶과 음악이 환상적인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북쪽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마술피리 등이 담긴 CD가 수록됐다. (큰북 작곡·1만5천원)



▲작은 아씨들=명작을 통해 눈길을 배우는 눈물겨운 시리시리. 당당하게 자신들의 꿈을 키워 나가는 네 자매의 이야기로 만화로 미리보기, 어떤 이야기 인가, 한눈에 살펴보기, 이렇게 읽어보아요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아이세움·7천500원)



▲위대한 두 화가의 만남 고흐와 고갱=세계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화가 고흐와 고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았다. 두 거장이 남긴 대표작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꼬꼬닭 빨강이를 누가 도와줄래? =2006년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그림책. 부지런한 꼬꼬닭 빨강이와 게으른 이웃들의 이야기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당당한 교훈을 준다. (열린어린이·9천800원)

“천재는 광기안에서 탄생 된다”

신이 내린 광기 제프리 A. 코틀러 지음

천재는 광기(狂氣) 안에서 탄생되며, 광기는 천재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다. 예술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에니스트 헤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마릴린 먼로는 여러 형태의 정신불안으로 시달려야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상담학과 교수이자

30여 년 동안 병원 등지에서 상담전문가로 활동한 제프리 A. 코틀러의 '신이 내린 광기'는 '예술적 기질'과 '광기'의 관계를 추적하는 책이다. 예술적 기질과 광기가 분명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광기는 정상적 정신상태가 아닌 것을 뜻한다. 하지만 현대 이전에는 광기가 창조성을 위한 중요한 덕목으로 존중받았다. 플라톤이 '신이 의해서 주어졌 것 중에서도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도였다. 즉, 한계의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를 위한 광기는 곧 천재성과 동일시됐다.



천재적인 예술가들에게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에니스트 헤밍웨이도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를 비롯해 할아버지, 아버지, 누이와 남동생, 그리고 막내 아들 등 5대가 자살을 택했을 만큼 슬픈 가족사를 안고 살았다.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1926~1962)는 평생을 버림받는다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정신병으로 자살을 했고, 부모 또한 알려지지 않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숨을 거뒀다. 그녀는 자신도 광기에 사로잡혀 자살을 할 것이라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혼란 속에 갇혀 지내야 했다.

버지니아 울프(1882~1941)도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며 글을 썼다. 부모들의 재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족 관계가 복잡했다. 또 아버지의 사망으로 정신이상 상태에 빠져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며 심한 욕설과 분노를 터뜨렸다.

저자는 이들의 광기가 혁신적인 창조물을 탄생시켰다고 소개한다. 예술,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 등의 장르에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예술적인 힘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정신적 장애를 앓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신이 이들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과 같은 광기가 결국에는 이들의 예술적 혼을 되살려주는 가장 큰 에너지였다. 이들에게 광기가 없었다면 천재성도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은 이들을 포함해 작가 실비아 플라스, 배우 잭 니컬슨, 화가 마크 로스코, 발레리노 바실라프 니진스키 등 천재적 예술가 10명의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들려준다. 이들의 광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족 관계 등을 도표로 표시했고, 다양한 뒷이야기를 곁들였다. (시그마북스·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서부개척 그늘에 가려진 인디언의 비극

살아 있는 미국역사 하워드 진 지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과연 영웅일까. 그가 신대륙에 도착해 인디언들에게 휘두른 광란의 폭력은 무조건 정당화 해야 하는 걸까. 링컨의 노예 해방은 진정한 노예 해방이었을까.

미국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본 책이 출간됐다. 노엄 촘스키와 함께 미국의 양상을 대표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하워드 진이 쓴 '살아 있는 미국역사'는 정복자와 영웅의 시각이 아닌, 그들에 의해 희생 당한 '민중'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한 책이다.

자신의 대표작인 '미국 민중사'를 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쓴 이 책은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다. 전쟁, 인종, 차별, 경제적인 부당함에 반대하는 저자는 최근 개성관을 내면서 2006년 말까지의 역사를 보강,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등에 대해 비판한다. (주출판·1만2천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현대사 60년 선거 중심 정리

대한민국 선거 이야기 서중석 지음



한 때 "못살겠다 갈아보자"에 "갈아봤자 소용없다"는 정치 구호가 있었다. 정치의 계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5월10일 최초의 보통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까지 1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와 18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 속에는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에서부터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선거까지 있었다.

역사학자 서중석 상군대교수가 한국 현대사 60년을 선거를 중심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선거이야기'를 펴냈다.

4월 혁명으로 이어졌던 1960년 3·15 부정선거, 최초의 균형국회를 탄생시킨 1971년 총선, 6월 항쟁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던 1985년 2·12 총선,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5공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1988년 총선까지 역사 속 선거를 두루 살폈다. (역사비평사·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손택수의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자산어보'(菹山魚譜)는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인 '신유박해'로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저술한 '해양 생물 연구서'이다. 일찍이 '동의보감'과 같은 식물(약초)의 특성과 효능을 집대성한 저술은 있었으며, 해양 생물(주로 어류)의 속속과 맛을 다룬 저술은 김려의 '우해어어보'(牛海異魚譜)에 이어 '자산어보'가 거의 유일한 만큼 내용을 넘어서서 그 희귀성만으로도 우리나라 기록 역사에 보배로운 존재라 할 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어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다. 그러면 상식을 읽으면 말인가. 손택수의 '바다를 품은 책 자산어보' 우선 이 책의 지은이가 시인이란 점이 흥미롭다. 시인은 '자산어보'에 실려 기대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 정약전의 따뜻한 심성과 아우 정약용과의 끈끈한 우애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깨매 간다.

형의 건강을 걱정하여 개라도 잡아서 요리해 드시라는 정약용의 간곡한 편지에 정약전은 "다만 다산은 성질이 급하여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두면 먹고 자는 것을 잊어버리니... 몸을 충분히 양생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답장을 부칠 만큼 서로를 걱정해 주는 마음이 각별했다. 자잘한 시새움으로 형제간에 우애가 별로 좋지 못한 필자에겐 실로 뼈저린 대목이다.

시인이 쓴 바닷고기 이야기



이 책은 내용을 이루는 각 항목마다 시인 특유의 상상력과 여러 가지 비유, 동서고금의 고사와 저술을 인용하고 있으며 시인 자신의 체험과, 동일한 소재를 다른 시까지 곁들여 놓아 지루함 없이 읽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이 단순한 '해제'나 '워밍업'이 아닌 '지음'에 충분히 값있는 이유이다.

가령, 상어 항목에서 스피버그와 정약전의 상어판(?)을 대립시키는가 하면, 날치 항목에서는 중국의 '산해경'과, '장자'를 대담 들이댄다. 홍어의 '가시기'에 대한 정약전의 근엄한 경고(?)를 접할 때에는 슬며시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 특히, 북어 항목에서 당나라의 시인 서동파와 춘추시대 월나라의 절세미인 서시의 뒷쪽지(서시유)를 만나는 일은 즐겁다. 거기에 더하여 이렇기 시인의 시 '북어'를 읽는 재미는 덩어리다.

아 참, 맛을 뻘뻘했다.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바다 생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담은 임원기씨의 세밀화는 글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만일 당신이 절해고도에 유배되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탈출을? 죽음을? 아니면 유배가 풀리기를 고대하는 연구자나 쓰겠다고? 정약전은 모두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유배지를 누구보다 사랑하였고(최소한 사랑하려고 노력하였고), 흑산도 주민들조차 그를 서로 모시겠다고 싸울 정도로 '진짜 흑산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무언가 한 가지라도 붙잡고 몰두하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흑산도의 푸른 바다였고 물고기와다.

'자산어보'는 그렇게 해서 탄생되었다. 청년 창대(장덕순)와 바닷가에 나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육체 거구의 사나이가 바로 정약전이었다. 그는 흑산도에서 만큼은 자유인이었고, 온전한 선비요 실학자였다.

흑자는 왜 '자산어보'를 '현산어보'로 읽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또한 이 책 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정약전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우 정약용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흑산도 인근의 섬 우도에서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다. (정병근(시인))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hung, Sangwul, Daeji, Solomon, and A+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